통도사 화엄산림 회향…체육인학생 지원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법문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30일간의 대장정 '계묘년 화엄산림대법회' 회향법회를 1월 10일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화엄산림대법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입재를 시작으로 화엄의 법석을 이어왔다. 조계종 전 고시위원장 지안 대종사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30여 명에 이르는 원로 대덕 스님들이 통도사를 찾아 화엄경 각 품을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하루 두 차례 법문을 펼쳤다.

회향법회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법회는 관욕과 상단불공, 축원, 회향법문, 전달식, 주지스님 인사말, 시식 후 동참 위패 봉송 의식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회향법문을 하고 있다.

성파 대종사는 회향법문에서 "한 달 동안 화엄경 설법을 들은 여러분은 자신을 항상 밝게 비추는 자화등을 발견해 잘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그 등불을 잘 밝혀서 눈 밝은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화엄경을 공부한 여러분은 자신이 구품연대임을 알고 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법을 가르쳐주신 부처님께 감사해야 하고 통도사의 개산조인 자장율사, 역대 조사스님들, 그리고 화엄 법석을 마련해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도 늘 주변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한 달 동안 먼 길을 찾아와 화엄법회에 함께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대방광불화엄경의 대의가 우주법계 만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밝힌다는 '통만법명일심'이다"며 "우리 마음이 우주법계 모든 게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오늘 종정예하께서 회통법문을 해주셨는데 잘 새겨서 간직하도록 하자"고 회향인사를 전했다.

한편 통도사는 매년 화엄산림 회향법회를 맞아 불자 체육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는 진해여중 김지은 학생 등 총 10명의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통도사는 화엄산림 기간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원만한 행사 진행을 도운 사리탑봉사회와 바라밀다봉사회, 염불공덕회, 염화회 회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시식의식과 동참위패 봉송의식이 진행되며 화엄산림대법회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역동적 신행으로 불교중흥 이루자"

화엄사 1월 6일 신년하례법회 300여 대중 참석, 시상식 진행

"역동적인 신행활동으로 앉아있는 불교에서 나아가는 불교로 변화하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1월 6일 경내 화엄원에서 본말사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하는 '불기 2568년 신년하례 및 화엄법회'를 개최하고 갑진년의 힘찬 출발을 서원했다.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법회에서 덕문 스님은 "새해에는 역동적인 신행을 통해 앉아있는 불교에서 나아가는 불교로, 활기찬 불교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로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스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괴로운 마음보다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떤 실천을 하면 삶이 나아질까 생각한다면, 올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엄사 신년하례 및 화엄법회 이후 참석대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엄사는 갑진년 첫 화엄법회를 맞아 모범적 활동을 펼친 신도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덕문 스님은 정상교·윤원·오인석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신도회부회장 겸 수심회 회장에 정상교, 청년회장에 주형동, 선재회 회장에 류창수, 화음합창단장에 선현구 씨를 위촉했다. 이어 청년문화예술인 지원금으로 정결 '팔꿈치의 활동범위' 디자이너, 위대용·금민지 반달곰스튜디오 대표에게 각 300만원이 전달됐다.

화엄사는 "미래사회를 위한 소중한 문화예술 동량으로 지리산의 역사가 품은 깊은 사색과 자유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아름다운 청년문화예술인으로 성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대학생 불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이뤄졌다. 신년하례에서는 허윤(한국전통문화대학원), 이선주(가톨릭대), 류현우(순천대), 박소정(동의대), 류지훈(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허금강(한국전통문화대), 박차연(순천대), 고성주(순천대), 윤태웅(순천대), 박우준(순천대) 씨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신년하례서 전북발전 기원

도영 스님 비롯한 교구 대중 "각자 위치에서 노력 · 화합을"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일원 스님)가 2024 갑진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월 7일 전주 라한호텔 연회장에서 봉행된 법회는 조실 도영 스님, 회주 도법 스님, 백련사 회주 평상 스님,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부대중은 청룡의 해를 맞아 전북불교의 발전과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조실 도영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사상의 연기법을 우리가 함께 실현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누어 가자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여러 신행단체 여러분이 화합해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일원 스님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국내외는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점철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위험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이해하고 상생하고 화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법 스님, 평상 스님, 원행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새해 모든 사부대중이 건강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에 따라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해가 될 것을 발원했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새해 도민 모두 행복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에서 "올해는 128년간 사용하던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한 전북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겠다.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상생, 화합, 역지사지의 말씀을 받들어 새로운 백년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 전생담, 영어로 말해요

자타카영어대회 호남 · 제주 예선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의 호남, 제주지역 예선 열기가 뜨겁다. 1월 7일 구례 화엄사 화엄원에서는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 호남·제주 지역 예선이 진행됐다. 예선에는 화엄사, 전주 참좋은우리절, 수현사 어린이회 등의 경연참가 학생 19명과 학부모, 국제포교사 등이 참여했다.〈사진〉

예선은 저학년(초등 1~4년), 고학년(초등 5년~중등 3년)으로 나눠 미리 제공된 각 4개의 자타카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이야기 그림판과 스님 의상을 구현해 지난해보다 훨씬 뛰어난 발표를 선보였다.

직접 스님 복장을 입고 다양한 손짓으로 구현을 한 장준우(대정초 3) 학생은 "그동안 많이 준비해 힘들었는데 발표를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 영어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조기정(목포대), 양미경(고구려대), 박해소(동신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렸다. 심사는 '자신감 있는 대본, 유창한 언어구사, 동작'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조기정 심사위원은 "저학년의 발표가 우수하고, 고학년의 경우 학업으로 인해 많은 준비를 못한 것 같다. 앞으로 기회를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심사평을 했다.

참좋은우리절에서 어린이 영어법회를 지도하는 명지 교사는 "평소 부처님 일생에 관한 내용을 영어로 법회에서 알려주고 있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수불교계 "지역불교 발전에 최선"

여수사암연합회 신년하례법회



여수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1월 5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불기 2568년 여수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하고 지역불교발전과 여수시민의 행복을 발원했다.〈사진〉 행사에는 연합회장 연규 스님, 부회장 도해 스님(달마사 주지), 혜명 스님(대각사 주지), 총무 혜욱 스님(한산사 주지)을 비롯한 지역 사암스님들과 위재춘 여수불교신도회장,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규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계는 갈등과 번뇌의 소멸을 위해 마음수행과 선 명상을 보급하여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불교, 존경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정진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스님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원만 준비와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으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의 시금석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정인사 불교대학 2기 수료

1월 9일 79명 졸업생 배출



백련불교문화재단 정인사 부설 불교대학(학장 원행 스님)이 두 번째 수료식을 봉행했다.〈사진〉 1월 9일 창원 정인사 교육관 2층에서 봉행된 수료식에는 정인사 불교대학장 원행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진휴 스님, 일진 스님, 일맥 스님과 불교대학 졸업생 및 가족 등이 참석했다. 수료식에서 105명의 입학생 중 6개반 79명의 불자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결석 없이 수강한 원보과 보살 등 16명의 불자에게는 개근상이 수여됐고 여월 불자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정인사 불교대학은 1학기 16주 동안 불교입문, 부처님의 생애 등 기초교리 강의가, 2학기에는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중도) 강의와 금강경 강의를 진행했다.

학장 원행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만큼 수료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택 스님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정인사가 우리한테는 정법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입학생들이 늘어나 불교공부를 열심히 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황령산 난개발 즉각 멈춰야"

'황령산 시민운동본부' 출범



부산 중심에 자리한 황령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하사(주지 정산 스님)가 나섰다.〈사진〉

마하사는 1월 9일 황령산 봉수대에서 황령산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에 반대하며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전해주기 위한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대표 정산 스님, 이하 시민운동본부)는 마하사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등으로 구성됐으며 출범식에서 황령산 케이블카 설치 등의 개발 저지에 본격 나섰다.

대표 정산 스님은 "황령산은 남구, 수영구, 연제구, 부산진구에 걸쳐 자리 잡은 부산 중심 명산"이라며 "이미 난개발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스키돔으로 상처받은 황령산이 다시 기업의 영리와 이윤에 이용돼 황령산 제3터널 사업과 전망대,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름다운 황령산을 한 번 더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운문사 학인스님들, 삶과 죽음 공부

마하보디교육원, '생사의 장' 진행



재단법인 정토마을(이사장 능행스님) 마하보디교육원이 운문사승가대학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영성수행프로그램 '생사의 장'을 진행했다.〈사진〉

1월 5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생사의 장'은 마하보디교육원이 25년간 이어온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삶과 건강한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간 32명의 운문사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은 하루 12시간씩 좋은 죽음, 좋은 삶에 대한 다양한 배움을 경험했다.

학인스님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심신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작 치료부터 감정치료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험에 나섰다. 죽음 분야에서는 '죽음 명상' '사자의 서' 등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배우고, 출가사문으로서 어떤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할 것인지 고민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한편 마하보디교육원은 '생사의 장' 제56차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제56차 프로그램은 8월 24일부터 5박 6일간 진행된다. 052-255-8521~4

성낙두 경남지사장